

蘇聯에서의 十五日間

崔榮博*

蘇聯은 우리 韓半島의 最北端에서 陸統된 隣接國으로 國土가 아시아 및 유럽에 걸쳐 世界陸地의 약 1/6을 차지하는 大國임을 알고 있다. 8.15 解放後 蘇聯은 世界共產主義의 宗主國이고 또한 南北分斷의 元勳으로서 鐵의 카아틴속에 閉鎖되어 있어서 우리 國民에게는 너무도 疎遠된 나라의 하나로 되어왔다. 하지만 近者 急激한 世界情勢의 變動과 함께 차츰 國門이 열리게 되어 우리 韓國代表가 蘇聯에서 開催되는 學術會議나 體育大會에 參加하게끔 비자가 나오기 始作하였다. 우리 韓國水文學會에서도 지난 9月 2日부터 약 15日間 유네스코와 蘇聯國內委員會共同主体 「水資源開發을 위한 水收支備심포지움」에 論文發表와 討論에 參席할 機會를 가지게 되었다. 日本 「나리다」(成田) 空港을 出發하여 江과 큰숲 그리고 끝없는 地半線으로 象徵되는 시베리아 大陸을 지나 약 10時間안에 양파를 거꾸로 세운 것같은 聖堂의 尖塔의 十字架 위에 붉은 별의 夜景을 바라볼 수 있는 레닌그라드로 모스크 경유 無事히 到着하였다. 짧은 期間이나마 우리의 体制과 異質의인 蘇聯에서 느낀 이모저모를 적어보기로 한다.

1. 旅行 이모저모

蘇聯旅行 秘訣은 確實한 비자를 받는 것이고 行先地 其他 스케줄을 變異하면 大体로 생각지도 않은 難點이 생겨 이것을 잘 處理하는 데 많은 勞力과 時間을 消費하여야 한다는 것을 銘心하게 되었다.

觀光事業이 未發達한 蘇聯은 1980年의 「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旅行者를 誘到해 온 까닭에 旅行者가 激增하고 거기에다 言語不通과 正確한 地圖얻기가 不可能한 데다 蘇聯特有的 官僚主義가 보태어져서 잘못하면 旅行者가 不愉快한 感을 가질 때가 많다.

특히 市街 地圖가 적다. 計劃 出版이므로 旅行者의 豫測에 따라 一方的으로 出版하여 不足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5萬分之 1의 地圖는 없지만 「모스크」에 地圖商店이 하나 있어서 오직 여기에 가야만 蘇聯 全國

의 地圖를 살 수 있다 한다.

「모스크」 「레닌그라드」에만 6名 程度의 日本語의 「가이드」가 있고 韓國의 가이드란 없다.

首都 「모스크」에 있어서 黑色 自動車에 黃色 「T」字가 있으면 「택시」이며 이것도 駐車場에 가야만 탈 수 있다. 体格이 큰 택시運轉技上은 운전이 매우 亂暴하다.

「모스크」의 地下鐵은 便利하며 「M」字로 하여 (Metro) 出入口에 記入되어 있어 어느쪽으로 가면 어느 곳에 到達한다고 쓰여져 있으며 에스카레타로 上昇 下降하므로 매우 便利하다.

言語에 있어서 只今 돌아와서도 後悔하는 일이지만 出發 前에 「感謝합니다」 「未安합니다」 「失禮합니다」나 아침 저녁 人事程度의 蘇聯語는 最小한 記憶하는 것이 좋고 글자도 英語와 다른 點을 事前 알아두는 것이 便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駅, 橋梁, 港灣, 空港, 軍事施設, 工場, 軍人을 撮影하면 現場에서 필름이 押収되는 일이 있으므로 注意를 要한다. 특히 撮影에 있어서 때때로 옛날 스탈린 時代 教育을 받은 늙은 市民들은 關係官에게 連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注意를 要한다.

入國時 團體는 問題가 없는데 個人旅行에 우리나라 말로 된 政治的인 問題는 出版物을 가져가면 稅關이 問題視하는 것 같다.

出國時 蘇聯發行 出版物中 1940年 前의 것은 海外流出이 原則적으로 不可하며 책을 사서 郵送 할 때 책만 가져가면 郵便局員들이 窓口에서 小包로 싸므로 住所만 써주면 되기에 오히려 便利한 點도 있다.

結論으로 蘇聯旅行에 必要한 情報을 알아서 不安을 解消하려면 最小限 條件은 다음 세가지이다.

① 出發 前에 日本 東京에서 一般旅行者는 반드시 蘇聯 國營旅行社(인씨리스트)와 提携하고 있는 宿泊費 등의 쿠폰 料金(빠우차)을 支給받을 것이나 蘇聯 到着 後 空港 인씨리스트와 카운타에 提示하면 호텔

* 本學會會長 高麗大學校 教授(理博)